

보도시점 3.17.(화) 조간 < 3.16.(월) 12:00 >

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 3월 20일부터 중동 수출기업 대상 상시 접수, 3일 이내 신속 심사
- 최대 1,050만원 지원, 전쟁위험 할증료, 물류반송비용 등 지원항목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하였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둘째,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은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 받을 수 있어, 자금 집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0일(금)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055-752-858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001)
		담당자	사무관	서호경	(044-204-7463)
			주무관	박윤식	(044-204-7512)